

뱀짓 세미나(?)

20220200 @rear_car

할 게 없다

- 사람이 친구도 없고 학기중도 아니라면 게임 말고 할 게 없는 법
- 게임은 뭔가 손에 안 가는데 크롬창 켜 놓고 시간을 때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이다

1. 꼬맨틀 <https://semantle-ko.newsjel.ly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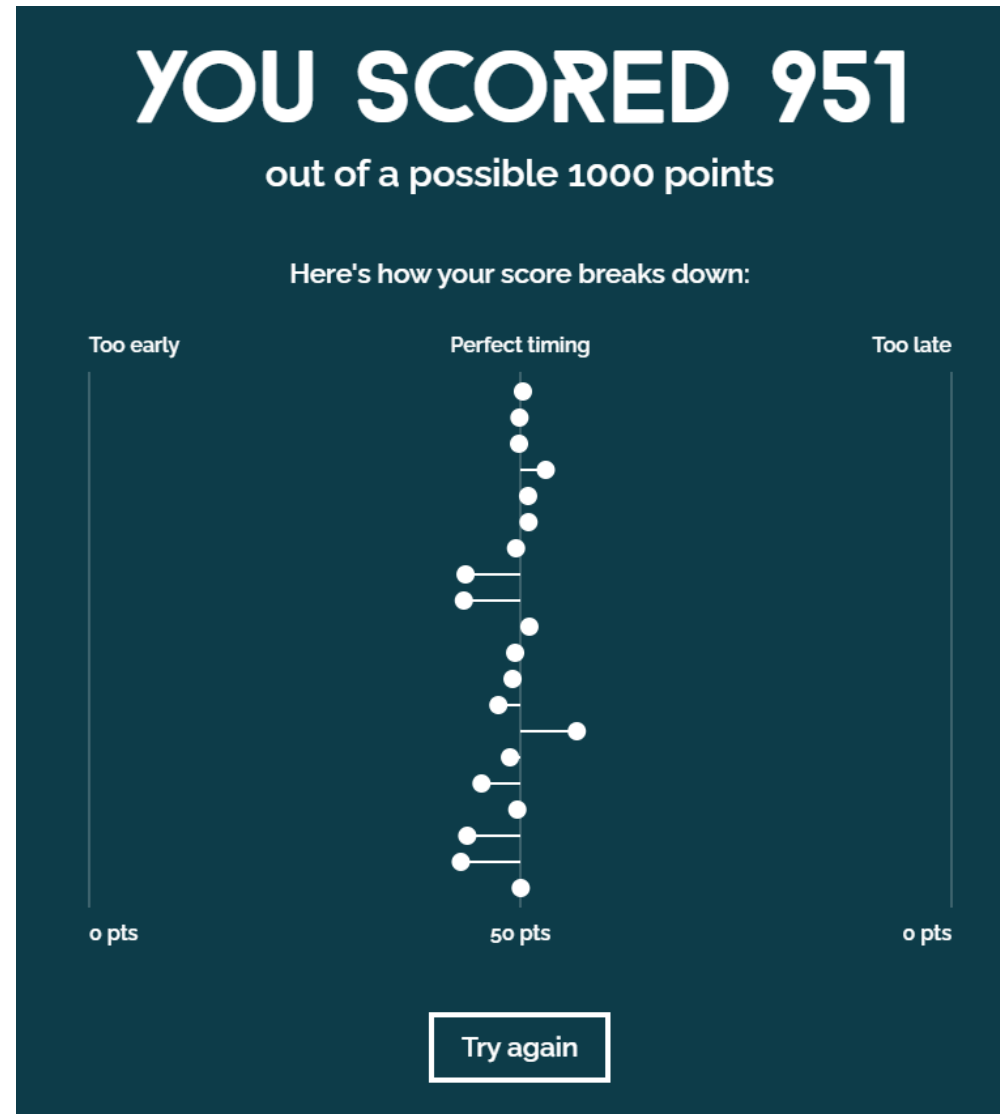
- 단어 유사도 추측 게임이다.
- 내가 입력한 단어와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매일 랜덤으로 지정되는 단어를 맞추면 된다.
- 여기서 유사도는 글자 성분이 아니라, 맥락상의 유사도.
- 이게 왜 유사? 를 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.

2. Got Rhythm? <https://www.concerthotels.com/got-rhythm>

- 박자를 얼마나 일정하게 입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테스트
-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.
- 그냥 하는 거 보다는 사이에 박자를 넣는게 고득점이 잘나옴.

- 제 최고 기록은 951

- 챗라이 챗라이



3. 마추기io, 이상형 월드컵(piku)

- 유명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
- 자신의 관심사나 재밌어 보이는 걸 들어가면 된다
- 혼자하면 현타가 심하니 주의 (특히 이상형 월드컵)

4. QUICK, DRAW <https://quickdraw.withgoogle.com/>

- 제시된 단어를 AI가 맞출 수 있게 그리면 된다
- 6개 다 성공은 운이 잘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

5. 나무위키 랜덤 광클 <https://namu.wiki>

- 뇌 빼고 하기 좋다.
- 자신의 관심사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, 가차하는 기분으로 돌리면 기분이 좋아짐.
- 1500000개 넘는 문서가 있다고 한다.

(제리 감사콘)